

연세대 2012 인문 길브레스 풀이과정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이 문제가 ‘과제해결형’임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010학년도 수시 3번 문제가 진화한 이 문제는 이러한 발문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10 수시	방안 들을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 하시오	단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012 인문	설계 해야 할지	의견 을 제시하시오	단 정해진 원칙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뿐이다.

이 문제가 2010 수시의 진화형이란 것을 안다면 2010 수시를 풀었던 핵심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S	V	O
나	시민	(공론장에서)논쟁	시민의 이익
라	주민	(자치회에서)논의	마을의 이익

공론장이 곧 자치회라는 것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끝날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변수가 개입하는데 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 2〉 제시문 (나)의 프랭크 길브레스는 벽돌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도 적용하여 채용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결합해서 어떻게 채용과정을 설계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정해진 원칙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뿐이다. (1,000자 안팎, 50점)

일단 주인공은 채용 담당관이고 하는일은 판별이며 대상은 지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원자는 경쟁률이 매우 높은 만큼 매우 많은 지원자이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다.

	S	V	O
발문	채용담당관	(어렵게)판별	(매우많은)지원자

그리고 제시문 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비례 2개와 우열 관계가 나온다.

1. 사진이 희미할수록 대학생의 인지율이 떨어짐
2. 사진을 짧게 볼수록 대학생의 인지율이 떨어짐
3. 희미한 정도와 공개 시간 가운데 전자가 사진의 인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침

그럼 이것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S	V	O
발문	채용담당관	(어렵게)판별	(매우많은)지원자
라-1	대학생	(더 어렵게)인지	(희미한)사진
라-2	대학생	(어렵게)인지	(짧게 본)사진

그리고 길브레스가 하는 일이란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표에서 어려운 이라는 부사는 전부 쉬운 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렇다면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용사도 반대로 바뀌어야 한다. 이 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라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서류가 처음이므로 ‘더 어려운’ 것, 즉 사진의 희미한 정도와 연관을 시키고 면접이 나중이고, 또한 면접은 사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은 사진의 공개 시간과 연관을 시키자.

	S	V	O
발문	채용담당관	(어렵게)판별 (쉽게)판별	(매우많은)지원자 (매우적은)지원자
라-1	대학생	(더 어렵게)인지 (쉽게)인지	(희미한)사진 (선명한)사진
라-2	대학생	(어렵게)인지 (쉽게)인지	(짧게 본)사진 (오래 본)사진

매우 적은 지원자는 판별하기 쉽고 매우 많은 지원자는 희미한 사진을 인지하는 것만큼이나 판별하기가 고역이니 일단 사람을 적게 만들어야 하기에 서류심사 기준을 대폭 뺄세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후에 치러질 면접 심사는 대학생이 사진을 오래 볼수록 인지가 편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대한 시간을 오래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람은 라의 실험 설명문에 일정 수준까지 선명도가 높아지면 프로젝터가 꺼진다는 점을 들어 서류심사만으로 끝낼 수 없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시문 나와도 결합시켜야 하는데 제시문 나에서는 역시 길브레스가 어려운 일을 하는 벽돌공을 도와 주고 있었다.

	S	V	O
발문	채용담당관 (길브레스가 도와주는 사람)	(어렵게)판별 (쉽게)판별	(매우많은)지원자 (매우적은)지원자
라-1	대학생	(더 어렵게)인지 (쉽게)인지	(희미한)사진 (선명한)사진
라-2	대학생	(어렵게)인지 (쉽게)인지	(짧게 본)사진 (오래 본)사진
나	벽돌공 (길브레스가 도와주는 사람)	(어렵게)작업 (쉽게)작업	비계 전담 전 비계 전담 후

나의 내용 중에 비계를 전담하는 노동자를 두었더니 편해졌다는 말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여 채용담당관들도 자신들의 일을 할 때 전담하고 분업해야 한다고 마무리를 해 주면 나와 라를 결합하여 발문의 과제를 모두 해결한 것이다. 답은 이렇게 작성될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나)의 프랭크 길브레스는 벽돌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도 적용하여 채용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결합해서 어떻게 채용과정을 설계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정해진 원칙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뿐이다. (1,000자 안팎, 50점)

라의 실험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희미한 정도가 높을수록 사진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공개 시간이 짧을수록 사진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 변수 가운데 사진을 더욱 인지하기 어렵게 하는 변수는 사진의 희미한 정도이다. 공개 시간이 33초에서 122초로 경충 뛰었는데도 희미한 정도가 상일 때의 사진 인지율은 고작 0.1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길브레스는 채용담당관을 도와 우수한 인재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이 회사는 경쟁률이 매우 높으므로 채용담당관이 우수한 인재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길브레스는 제시문 나에서 벽돌공들의 어려운 작업을 쉬운 작업으로 바꾸어 준 전례가 있으니 채용담당관들에게도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채용담당관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이 회사의 지원자가 매우 많다는 것인데 이는 곧 제시문 라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인 희미한 사진을 인지하는 일과 같으므로 희미한 사진을 선명하게 바꾸어 주면 사진의 인지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듯이 수많은 지원자를 1차 서류심사에서 걸러내어 적은 수의 인원만 남기면 판별하는 일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서류심사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일정한 정도로 사진이 선명해지면 프로젝터는 자동적으로 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반드시 치러져야 할 면접심사는 시간을 길게 두고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제시문 라에서 공개 시간이 긴 사진일수록 대학생들이 인지하기 쉬웠다는 점을 염두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채용 담당관 역시 면접심사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그 능력을 판별하기 쉬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랭크 길브레스는 제시문 나에서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던 벽돌공들에게 비계를 전담하는 일만 하는 노동자를 두는 등 분업화의 모습을 보여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얻었다. 따라서 채용 담당관들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과정에서 분업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제시문 나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프랭크 길브레스의 과학적 관리법이 채용담당관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1,027자)